



똑같은 은행업무를 보시더라도
축협은 더 빠르고 친절합니다.

아직도 축협을 축산농가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축협은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은행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700여개의 점포망,
거기에 서로를 돕는 협동정신이
몸에 밴 친절함 직원들 -
이 모든 것이 합해져 축협에선 똑같은
은행업무라도 그 어디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여성10월호(통권312호) / 1993년10월10일(매일10일) 발행 / 1964년6월13일 등록(서)라-7-7
1963년 2월 25일 제3호 무관물(나)인가(무관번호 140-013)

여성

특집 제30회 전국여성대회



1993
10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 신제품 :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럭키 UBR(UMM

최/고/만/을/원/하/는/당/신/을/위/해 新 감각 패션욕실-럭키UBR

욕실도 하나의 개성공간—
살내장식을 생각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죠.
이젠, 럭키 UBR을 선택하세요.
인테리어 감각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패션욕실 럭키 UBR—
지금까지의 욕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욕실입니다.

■ 럭키 UBR 시리즈



우아한 색상의 조화로
새로운 개성공간을 연출하는
천연석 질감의 럭키 UBR



고급타일을 사용하여 독특한
개성공간을 연출하는
새로운 타입의 럭키 UBR



인체공학적 설계로 안락함과
실용성을 강조한 콤팩트 타입의
신소재 럭키 UBR

럭키유네알(UBR)

■ 건축자재 전시장 : 522-9742-4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2 럭키 건축자재사업부 787-7616-7 ■ 지방영업소 : 인천 : 421-4085-6 ■ 수원 : 213-8991-6 ■ 부산 : 88-3911-6 ■ 마산 : 64-9911 ■ 울산 : 44-5645-6
■ 대구 : 964-1050 ■ 광주 : 367-0801-8 ■ 천안 : 83-9070-6 ■ 대전 : 625-3981-5 ■ 청주 : 52-2910-1 ■ 안성 : 743-4430-2 ■ 전주 : 758-3990-4 ■ 목포 : 81-9688 ■ 충청 : 243-3733, 55-3291
■ 강릉 : 646-0141, 2-4618 ■ 제주 : 42-9781-2 ■ 안동 : 858-7584-5 ■ UBR은 표준규격만 생산하므로 규격외 욕실에 사용시 비품 및 시공이 추가로 발생함-4C

월간 여성

월간여성 10월호
통권 312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30년 성상을 쌓아온 전국여성대회 / 김경오

특집 / 제30회 전국여성대회 - 2000년대의 가정

6 특집① 처사

생활과 의식의 개혁으로 신한국의 여성문화를... / 김영삼 대통령

9 특집② 화보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18 특집③ 수상자 프로필

용신봉사상·올해의 여성상·감사패 수상자

22 특집④ 주제강연

2000년대의 가정 / 김정자

28 특집⑤ 발제강연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가정 / 류태영

미래사회와 가족의 기능 / 이옥주

신한국의 가정 / 이연숙

38 특집⑥ 결의문·건의문

제30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건의문

41 특집⑦ 준비위원회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42 매스컴에 비친 여성

평일 저녁 7시대, 쇼 연에 비중 줄어

45 여성학 지상강좌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I) / 추애주

48 특별강연

국제화 시대의 여성의 발전 / 젤투르드 몽젤라

50 해외여성통신

여성, 인구정책의 희생자 / 이영남

52 여성계 동향 / 김효선

54 협의회 소식

58 우리들의 광장

30년 성상을 쌓아온 전국여성대회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각하 그리고 영부인 손명순 여사님을 모신 가운데 제30회 전국여성대회를 거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역사적 전환기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대통령께서 우리 여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친히 임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반수인 여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장관 3명과 여성차관 1명을 임명하시고 여성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여 주셔서 온 여성이 함께 기뻐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국여성대회 30년!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962년 600여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여성대회가 시작된 이래 한 세대가 다하도록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성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힘, 그 힘이 바로 우리 여성들을 성장시켰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데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회비를 내고 새벽잠을 설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



김경오 (본회 회장)

시계 발전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앞두고 「2000년대의 가정」이란 주제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질수록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성실한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함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의 역할도 변하고 가족간의 관계도 변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1년에 한 번쯤은 같은 입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을 만나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고 스스로 힘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국여성대회는 30회 성상을 쌓아 오면서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 의식 제고, 인구, 환경, 통일, 청소년, 교육,

정치참여 문제 등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한 주제로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채택했던 수많은 건의들이 오늘날 정책화되고 결실을 맺어 여성의 지위가 눈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모색되고 건전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김정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극빈자 무료진료, 농어촌 의료취약지 병원개설 및 회생적 운영 등 의료를 통한 사회공익사업에 앞장서 오신 이길녀 원장께 '용신봉사상'을 드리게 된 것과 우리 민족의 커다란 비극이자 아픔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문제인 정신대 문제 해결에 앞장서 국제적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고, 가해자인 일본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 이효재, 윤정옥 두분께 '올해의 여성' 상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통령 각하 내외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성들의 대제전인 전국여성대회가 30회를 계기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제30회 전국여성대회 “2000년대의 가정”

- ①대통령 치사
- ②화보
- ③수상자 프로필
- ④주제강연
- ⑤발제강연
- ⑥결의문·건의문
- ⑦준비위원회

생활과 의식의 개혁으로 신한국의 여성문화를 새로이 정립해야

김영삼 (대통령)

전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

만나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3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문명시대와 함께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 힘쓰신 공로로 상을 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신봉사상을 타신 분의 헌신적인 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두 분은 그 동안 재야에서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라 안과 밖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상자 두 분의 애국적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자원절약 등 건강한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성에게 더 적합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 정보산업, 지식산업, 과학기술 분야에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하겠습니다. 여성들도 21세기, 변화하는 세계와 문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에 맞게 정당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년전에, 「여성단체협의회」초청 간담회에서, 여성정책에 관해 말씀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후, 저는 세 명의 여성장관과 한 명의 차관을

개혁은 제도와 행정력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습니다. 의식의 개혁, 생활개혁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활과 의식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의식의 개혁을 통해 신한국의 여성문화를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임명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열아홉명의 여성동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한사람의 여성 파출소장을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에 임명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승진과 배치에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여성 초급간부 양성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녀차별 인사제도인 은행의 여자행원제가 지난 4월 폐지되었습니다. 제2금융권과 30대 제철기업의 남녀차별 인사규정도 시정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와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0회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는 "2천년대의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가 내년 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최초의 학교입니다. 가정의 건강은 곧 사회의 건강입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파괴된 가정, 결손가정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화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안으로부터 붕괴됩니다. 지금 서구사회는 가정의 파괴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21세기에는 그 변

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건강한 것이 되려면, 가정의 건강을 먼저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정이 기초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함께 가정을 구성하고, 같이 끌어간다는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대가족일 때보다도 오히려 가족간의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가족 하나하나가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과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화와 함께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하면 공동체 의식이 깨어집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보다, 내가족 나만을 위한 삶이 기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스스로 잔 이불을 개는 습성부터 길러줘야 합니다. 무조건 귀여워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빨간 불이 켜질 때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도 된다는 질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도 키워줘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어린이로 키워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을 만드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창의와

가정이 기초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함께 가정을 구성하고, 같이 끌어간다는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대가족일 때보다도 오히려 가족간의 대화가 더 없습니다. 가정속에서 가족 하나하나가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최대한 신장시켜야 합니다. 과학부문에 일찍부터 눈뜨게 해야 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논의가 21세기의 바람직한 가정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의 정착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또 기꺼이 고통을 분담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을 없앨 것입니다. 놀고 먹는 풍조를 없앨 것입니다. 부정한 거래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깨끗한 부는 그만큼 존경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거나, 권력으로 치부하는 지난 시대의 관행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개혁의 중요한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내조는 깨끗한 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 돈을 바르게 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성과 함께 여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과 행정력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습니다. 의식의 개혁, 생활개혁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활과 의식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의식의 개혁을 통해 신한국의 여성문화를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신한국의 여성문화는 그 이전의 여성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의 참다운 여성문화는,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있는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때로 불편과 작은 고통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실명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입니다. 가계를 아껴 저축한 예금은 결코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 이 시대 변화와 개혁의 주역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신한국은 그만큼 빨리 온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신한국은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신한국은 어머니처럼 사랑의 포용력을 지닌 새 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께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새롭게 나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회,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신한국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①행사장내 전경



②행사시작 1시간전부터 불비는 등록대



③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입장하기전에 지역별, 단체별로 류관순기념관 앞에 모여 있다.



④방영록에 서명하는 김경오회장

⑤ 본회 회장과 세명의 여성장관 및
이화여고 교장의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황산성 장관, 심치선 교장,
권영자 장관, 송정숙 장관, 김경오 회장)



⑥ 단체기 입장



⑦ 김옥환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⑧ 김경오 회장의 대회사



⑨ 용신봉사상을 수상하는 이길여 인천 길병원 이사장
⑩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는 이호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⑪ 감사패를 증정받는 김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⑫ 감사패를 증정받는 한호선 농협중앙회 회장



⑬김영삼대통령 내외가 행사장에 도착하여 김경오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⑭대회장에 들어서는 대통령 내외와 일행들



⑮대회 참석자들로부터 박수환호를 받자 이에 답례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⑯김영삼 대통령의 치사



⑰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대회 참석자 전원의 국기에 대한 경례



⑱김영삼대통령이 치사를 마치고 무대 아래에서 단체장 및 여성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①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장의 주제강연
② 정영숙 한국퇴역여군회 회장의
결의문 낭독
③ 박순옥 전남여협회장의 건의문 낭독
④ 대회 참석자들 전원이 일제히
일어서서 결의문을 낭독,
다짐하고 있다.



〈대외교류 활동〉



⑤ 1부 행사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류관순기념관 앞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⑥ ②부 여흥시간을 다함께 보내며 즐거워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할극 경연대회〉

①「전문직 여성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전한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②「우리의 자연 소중한 것이야」-
전북여협



③「잃어버린 우리의 양심을
살리자」-부산여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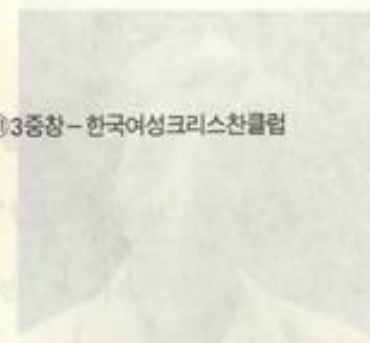


장소: (서울시) \ 공연

④「어느 일요일의 개혁」(가정문제)-
강원도여협



⑤ 3중창-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⑥「가정의 위기」-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⑦「사랑으로」(도민의 노래)-충북여협



제9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공동수상)



성명: 이효재(李效再)
생년월일: 1924. 11. 14(만 69세)
주소: 은평구 신사동 미성A 6-601
직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학력 및 경력

1947 이화여대 영문과 수료
1951 미국 앨라배마대 사회학과 졸업
1957 미국 콜롬비아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1968~1980 이대 사회학과 교수
1989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1990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1990~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1990~현재 여성사회교육원장

수상경력

• 心山사상연구회 학술상
• 한국일보 문화상 저술상



성명: 윤정옥(尹貞玉)
생년월일: 1925. 9. 21(만 68세)
주소: 서대문구 대신동 131번지
직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학력 및 경력

1949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1955 미국 내쉬빌 Scarrett College 성서문학 전공
1967 미국 University of Iowa 영문학과 창작 전공
1980 영국 University of Exeter 영문학 수학
1958~1991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1990~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수상경력

1991 여성동아상 수상

지상수 심사위원 호의

공적사항

1. 1990년 11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2. 1991년 7월 국회의원서 제출-6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해결 노력 요청
3. 1991년 9월 정부와 국회의무위에 국회 및 정부기관내에 '정신대실무조사 대책위' 구성요청
4. 1992년 1월 정부내에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구성되어 정신대 피해자신고 접수받음
5. 1992년 UN인권위원회에 정신대 문제 상정하여 조사활동 요청
6. 1992년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구성
7. 1992년 8월 아시아 연대회의 개최 후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성명
8. 1992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때 필리핀 여성단체와 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9. 1992년 12월 일본군 정신대 관여 사실 인정
10. 1993년 일본의 부분적 강제연행 사실인정
11. 1993년 3월 정부의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발표
12. 1993년 5월 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지원법 통과
13. 1993년 8월 UN인권소위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는 특별보고관 파견 결정
14. 1994년 일본 역사교과서에 정신대 문제 수록 결정

제29회 용신봉사상 수상자



성명 : 이길여(李吉女)
 생년월일 : 1932. 5. 9(만 61세)
 주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본적 : 상동
 직업 : 길병원 이사장
 추천기관 : 한국여의사회

학력 및 경력

1957.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64~1968 미국 QUEEN'S HOSP. CENTER N.Y.USA
 1976. 3 일본대학 의학부 수료
 1978. 8~현재 의료법인 길병원 재단 이사장
 1991. 11~현재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1980. 6~1984. 5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1983. 12~1987. 1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상경력

1985. 6 국민훈장 모란장

공적사항

1. 1958~현재 극빈자 무료진료권 배부, 무의촌 및 낙도지역 무료순회진료, 자궁암 무료검진
2. 1982. 양평길병원 개원, 1988. 천원지역에 병원 개원-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병원 개설하여 농어촌민에게 의료기회 제공
3. 1979. 승려원 설립-노인복지 및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마련
4. 1991. 가천문화재단 설립-향토문화예술 발전과 민족정서 함양 도모
5. 1992. 새생명찾아주기 범시민운동본부 발족-불우환자 치료
6. 1993. 미주홀 어린이 봉사단 창단-학교외적 가치관 형성 교육 실시
7. 무료진료 및 의료시혜 : 심장병발굴환자 800여명 중 무료 수술 98명, 수술 대기환자 10명, 자궁암무료검진 (1960~1992) 167,738명
8. 1991~현재 바자회 개최하여 불우이웃돕기 : 보육원(6곳), 시설원(3곳), 무료진료 4,433건, 육해군과 경찰위문 12회, 우수학생장학금 지급(16명)

감사패

-제30회 전국여성대회를 기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업 전 보건사회부 가정복지심의관

20년간 부녀복지 행정에 헌신하였고 특히 보건사회부 가정복지 심의관 재임시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함



한호선 농협중앙회 회장

우리 농산물물을 애용하고 도시·농촌간의 이해를 넓히는데 여성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단체 발전에 기여함

2000년대의 가정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장)

가족기능 강화의 사회적 의미는 "경제적 발달 및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문제 내지 인간 문제의 근원적 치유 및 해결은 공공정책의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문제 해결의 모체는 가족기능에서 찾아져야 하며 가족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가능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기능해야 한다.



오늘날 21세기를 준비하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조망하고 이에 근거해서 미래 준비를 위한 대안들을 내어 놓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90년대를 시대의 전환점이라 규정하고 인간, 자연, 기술의 공존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우선적인 기술개발로부터 사회의 공공성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을 주장하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복합화를 향해 학문영역의 융합·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인간친화적 기술개발, 사회친화적 기술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임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의의 근거에는 21세기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황폐화' 내지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미 산업사회의 특징인

있는 기계(mechanism) 또는 매개물(vehicle)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한편 UN은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로 선정해서 가정의 의미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 가정의 해"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가정은 사회의 토대이며 중추로서 개인과 사회간의 자연적 교량이라는 데 동의하고 가정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로 하여금 가족에 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의 교환,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의 통합적 종합적 접근을 권유하고 "가정이 사회의 심장"임을 상징하는 공식문장을 채택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 및 동선언이행을 위한 행동계획(1990)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가정의 해"준수의 중요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 사회개발위원회 제32차 회의보고서).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이러한 기본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산구조에서 초래된 규격화, 획일화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 거대한 제도예의 예측화를 우려해왔던 인류사회는 이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속에 있다. 정보화사회는 개별화, 개성화라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고립화, 인간관계의 원자화(atomization)를 더욱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족 내지 가정을 이와같은 인간의 황폐화, 인간정서생활의 빈곤(poverty of the emotional life),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극복할 수

념과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가정의 해'가 추구하는 공동노력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미래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여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작업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의무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를 채택하고 오늘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

우선 본고에서는 2000년대의 가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짚어보고 미래가정에 대한 기본시각을 정리해 본 다음에 2000년대의 가정은 어떠한 가족기능이 강화되어야 미래사회에서 존립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2000년대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미래가정을 창조하는 우리의 관점을 정리해 본다.

I. '2000년대의 가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

1. 미래는 창조되는 것이다.

첫째, 미래는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단순히 다가오는 시간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보다 발전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미래 인간의 삶도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의지 그리고 창의로 가꾸는 삶"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자연사(自然史: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역사)와 구분되는 인간의 역사라 정의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여성은 어떠한 뜻과 의지로 삶을 창조해갈 것이며 삶의 창조자로서의 여성은 어떠한 미래사

회를 지향하며 여성이 지향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떠한 가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여성이 지향하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는 희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고도기술사회,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환경용량을 초과한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과피해의 심각성이 바로 우리의 가정생활과 인간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도기술사회, 정보화사회는 가정을 자동화·첨단화시켜 직장에서의 일까지 가정에서 기계로 처리되며 가사서비스도 기계로 대체될 수 있고 자녀의 숙제도 기계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때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인간보다는 기계의 기능성에 더 의존하는 인간생활패턴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족간의 대화의 시간보다 TV시청시간이 더 길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의외의 가상은 아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가족이기주의를 걱정하고 가족끼리만의 고립된 인간관계를 또한 걱정하지만 미래 정보화사회의 가족은 가정속에서도 각자 고립된 생활패턴을 가지기 쉬우며 인간관계 범위는 더욱 축소되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는 더욱 약화되어 아동의 사회화, 정체감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미래가정은 정체된 체계일 것이며 사회의 심장은 멎을 수밖에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고갈되어 인간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고도과학기술문명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2000년대 한국가정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이다.

2. 가정에 대한 기본시각

첫째, 가정 내지 가족은 성장하는 체계이다.

가족은 성장하는 개념이다. 정체된 집단이 아니라 생성과 죽음, 사랑과 갈등이 공존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가족내적 역동성 뿐 아니라 가족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사회기본단위로서 지역사회의 핵으로서 가족외적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경계는 항상 열려있어 사회변화에 신속성있게 반응하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이어가기도 변화시키기도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 체계이다.

둘째, 가정은 사회의 심장(Family as the heart of society)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UN사회개발위원회는 '세계 가정의 해'를 채택 선포하고 '가정이 사회의 심장'임을 상징하는 공식문장을 선정해서 우리시대와 미래사회에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70년대 가정의 소멸을 우려하던 많은 가족학자들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오늘, 가족유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다양한 제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내지 가정의 소멸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단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그 사회속에서의 인간관계의 소멸을 예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축소 내지 소멸, 가족관계의 병리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족유지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유는 가족이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구축의 접착제(glue)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분리되어 갈수도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인간이 인간답게 숨쉴수 있는 심장의 기능을 가정이 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도 건강하게 박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은 인간사망을 때우는 교육의 장이다.

인간이 출생해서 인간관계를 최초로 경험하는 장이며 그 사회의 문화를 최초로 접하는 생활의 장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기능은 다른 어느 사회기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정의 고유기능이며 빠르고 끊임없는 사회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속적 기능이어야 한다. 가족의 역할은 많은 공적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세기동안 서구사회의 사회경제적 발달은 공적 영역의 극적인 확대를 가져왔고 현대화과정은 국가와 공공질서가 사적 영역에 깊숙히 파고들어 가정의 개념 및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 그러나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적 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의 역기능으로 인한 인간소외 및 다양한 사회문제 치유의 열쇠는 결국 인간사랑이며 이러한 능력은 가정의 교육기능에서 학습되고 길러지는 것이라는 해답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정이라는 교육장에서 평등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식, 사회연

대의식도 가정에서 길러지고 민주적 가치규범 역시 가정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도덕성도 인간존중의 가치관도,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도 가정이라는 교육장에서 길러질 때 인간의 기본적 품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II. 2000년대의 가정은 어떠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가족사회학자들은 가족 내지 가정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해서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에 기초해서 미래가정의 변화모형을 전망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여성의 지위내지 역할과 관련된 함의를 찾아보는 가족이론적 접근으로 2000년대 가정을 진단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성의 의지가 담긴 미래가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야 할 가족기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가정과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1. 새로운 사회가치 및 문화창출의 기능

가정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형성되게 하는 최초의 장이다.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상징적 체계의 기본적인 규칙을 습득하고, 감정과 정서와 의지를 가족집단과 더불어 공유함으로써 인간적 정서와 태도를 형성하며,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집단의 성원이 되는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OKin은 한 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사랑하고 그 사회의 기본가치로 사회

정의의 추구한다면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은 그 형태가 다양할지라도 아동이 나서 자라는 곳이므로 아동의 초기 도덕적 발달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분명히 결정적인 장이다. 그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감 발달의 일차적 교육장이 바로 가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의의 원칙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회환경속에서 어떻게 아동이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감을 발달시키도록 배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공정한 가족(a just family)이 사회정의의 필수적 기반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을 향한 미래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식이 보편화되어 가족이 기주의의 병폐를 분석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신뢰사회로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민주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치 및 문화창출의 기능이 새롭게 정의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우리의 의식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가치가 합의되어 그 합의된 가치위에 미래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인간중심문화가 우리 가정안에 정립되어 다음세대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의 문화창출 및 전승기능이 새로운 변화의 바탕위에 이루어져 나간다면 가정이 우리사회의 변화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체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연대의식, 나아가 국가관의 확립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자녀사회화의 기능

가정은 아동사회화의 일차적 집단이며 가장 친밀한 환경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배우고 의식과 인성이 형성되는 장이다. 또한 가정은 성장과정에서 가장 영속성있는 영향을 미치며 가정은 아동의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깊이 관여한다. 가정은 광의의 교육행위인 일차적 사회화의 기제이다. 학자들은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가정의 사회화기능을 "인간의 영원한 학교" 또는 "정의의 학교로서의 가정(the family as a school of justice)"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가정교육에 의해 인성의 기본틀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도 정상적인 가정교육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거대한 학교조직이 창설되어 아동은 어린나이에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자라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인으로서 부상되었다. 가족의 재량권은 없어지고 부모는 더 이상 아동의 사회화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가정의 부모들은 대학입시라는 교육제도가 주는 힘든 경쟁상황속에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교육, 정상적인 인간교육을 포기 하다시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부모는 가정교육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자신감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자녀교육문제를 방임, 포기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가정 교육의 역사화 현상'이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한 미래가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약화된 가정의 교육기능을 살려 내야 한다. 그것은 여성이 미래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변화되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남녀역할구분이 배제된 평등의 가치가 아동인성의 기본요소(component)로 학습되고 내재화 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이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Okin은 남녀역할관계의 불평등이 유지되는 한 사회정의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가족이 정의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논증하고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사회로의 변화도 가정에서의 평등가치가 가정의 교육기능을 통해서 아동에게 학습되어 생활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부부간에 평등규범이 실천되지 않고서는 평등사회로의 변화는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함에 있어 가정의 사회화 기능을 통해서 길러주어야 할 가치, 규범,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가족의 핵화, 소수화, 도시화, TV문화화산 등의 요인들로 인해 가족끼리만 고립된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도시가정이 늘어감으로써 가족이 기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협된 가족이 기주의적 성향속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다면적 인간관계형성 및 다면적 인성특성이 길러지기 어려운 성장환경에서 자람으로써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및 타협심, 인간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품성의 아동으로 길러진다. 이

웃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성 등이 발달되지 못하게 되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ability to love)이 길러지지 않은 메마른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부성부재 현상도 가정의 교육기능이 이행되지 못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경제개발 최우선정책은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 및 부성역할을 소멸시켜 버렸고 산업사회의 작업계획(work schedule)은 부는 직장, 모는 가정이라는 기존의 성역할관계에 기초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부재(父夫在) 현상은 여전하다. 따라서 자녀양육, 가사노동은 모의 몫이 되고 있다. 부성부재, 피곤한 모로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민주주의 가치확립의 시발점으로서의 기능

우리가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권위구조를 설명하면서 "한국가정의 성역할에 관한 한 남성에 있어서는 천국이요 여성에 있어서는 연옥이다"라고 표현했다가 다소 과장되어 있으므로 "남성에 있어서는 왕국이요, 여성에 있어서는 수용소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김재은, 1977). 70년대의 표현이라 90년대에서는 후자의 표현도 다소 과장되기는 했으나 남녀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고정관념이 잘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식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편견적 의식과 실생활에 고착되어 있는 차별적 역할행위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동안 많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자체에서 민주화로의 변화를 원하는 대다수 시민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는 그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남녀역할차별구조가 민주적인 평등구조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구조의 민주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및 힘의 배분 등에서 부부관계가 불균등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즉 가족내에 불평등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동의 인성발달, 도덕성, 가치관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의 역할개념도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차별적 역할관을 학습하게 되어 가정은 "성차별의 재생산 기계"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등, 인간존중, 가족관계의 기본가치로 정립될 때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을 배출할 수 있고 오래되고 깊은 불평등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우리의 미래사회가 민주적 다원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면 이는 가정에서 의식이 개방되고 가족구성원간에 보다 자유롭고 상호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다원적인 민주적 가치가 생활화될 때 민주적 다원사회로의 발전도 가능하다.

신한국의 변화와 개혁은 많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그들의 새롭고 맑은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남성중심의 기존의 지도자들의 이중성, 다중성의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어 우리는 큰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민주적 가치가 그의 인성에 배어있는 도덕적 투명성을 지녀야 하며 인간존중의 기본철학을 지닌 품성의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성이 길러지는 가장 기본적인 장은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을 자존적 인간으로

기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정이 담당해야 한다. 주변적이며, 이차적 시민으로 스스로 격하하는 종속성을 여성이 극복하고 독립심과 자존심을 갖춘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 여성의 강함이 억압에서 오는 반동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우리사회의 체면아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III. 가족기능강화의 정책적 함의

1.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정책

가족기능 강화의 사회적 의미는 "경제적 발달 및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문제 내지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 치유 및 해결은 공공정책의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문제 해결의 모체는 가족기능에서 찾아져야 하며 가족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가능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기능해야 한다. 사회정책 내지 가족정책의 기본관점은 여성은 가정의 사람이며 자녀와 노인의 보호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규범과 사회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과 새로운 규범간의 간격을 채울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이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자원으로 가족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사회변화를 흡

수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반응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모가 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아동보육서비스는 그 가정을 지원하는 당위성을 가진 정책적 대안들이다. 가족과 공식제도사이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문제를 가진 가족뿐 아니라 평균적인 가족(average families)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건강한 가족이 유지되어 새로운 가족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통합 내지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다.

2. 가족과 경제, 국가간의 연관성

이제까지 노동정책은 대개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두는 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노동자의 삶의 질적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우선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도 가족을 지원하는 재분배 및 사회서비스 정책은 영구성의 정책(an immortality policy)이라는 인식이 생김으로써 노동자의 만족,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등 숙원된 노동력 이상의 것에 관심을 부여한다(S.B. Kamerman, 1978).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효과적인 환경(milieu)이라는 경제적 관점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질적문제에 관심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아동양육의 과외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재분배제도로서 공적차원의 보육서비스는 가족의 전반적 삶의 질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3. 평등의 가치위에 입안되는 가족정책

여성이 지향하는 미래가정은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에서 평등(equality)의 가치가 기본가치로 존중되는

가정이다. 가족정책학자들은 가정은 그냥 내버려두면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전달시키는 매개물이 된다고 경고하고 가정이 불평등하고 아동의 사회화에서 특히 초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평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가족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한다(Kamerman, p.498).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가 합리적으로 평등의 바탕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가족을 통해서 불필요한 불평등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의식속에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남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불평등이 그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가족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세계 가정의 해' 준비로서의 가족정책

'세계 가정의 해' 준비위원회는 각국에 IYF를 위한 대규모 조정체인 "국가조정위원회"구성을 권고하고 준비작업을 위한 조정업무와 지도(advisory)기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 하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을 권고한다. 즉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은

- 1)가족관련 지방과 중앙의 활동조정, 관련단체 포괄, 정보교환
- 2)IYF사업을 발기, 선전
- 3)장단기, 중앙과 지방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관련 국가프로그램 및 가족정책고안
- 4)가족과 가족정책의 현황과악
- 5)가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6)국가발전전략안에 가족프로그램 포함등의 의제를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주로 가족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책방향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 및 교육훈련,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제거 등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 '2000년대의 가정'을 논하는 우리의 접근방향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족 내지 가정을 사회의 심장으로 상징하면서 그 중요성을 세계적 차원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싣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사회의 자연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 내지 가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지만 가족체계에 가해진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인간 삶의 일차적 환경으로 그 가치와 의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삶터임을 넓게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2000년대의 가정'을 첫째 사회가치 및 문화창출의 기능, 둘째 자녀사회화의 기능, 셋째 민주적 가치 확립의 기능을 우리의 미래가족에서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산업사회발전에서 공적영역으로 흡수되고 이관되었으나 가정에서 고유하게 수행되어야 할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게 강화 내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가정을 창출하는 데는 다음 몇가지를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래가정은 남녀, 부모자녀가 함께 창조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여성이 만들어 놓으면 다른 가족구성원이 돌아와서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갖는 곳이 아니다. 가정이 진실로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 아내, 자녀가 함께 가꾸고 창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라는 모델을 통해 자연스런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인간존중의 가치가 학습되며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 공동체 의식, 국가관 등 사회가 추구하는 거시적 사회가치가 내재화된다. 또한 인간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길러진다.

둘째, 가정은 미래사회변화, 사회개혁의 매개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사회와 인간의 황폐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가족이 유지되고 안정되며 가족의 고유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가족은 불평등 재생산의 기제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며 동시에 평등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이미 설명했다. 여성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는 여성이 인간으로 존중되는 평등사회이며, 여성의 힘이 증진(empowerment)되는 사회이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하며 여성의 주변성이 극복되는(mainstreaming) 사회이다. 동시에 여성이 사회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남녀모두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기능이 새로운 가치관과 평등문화를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가능하다.

셋째, 가족은 생존을 위한 고갈되지 않는 능력(inexhaustible capacity for survival)을 가진 체계이므로(Donzelot, 1979)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의 장점, 힘, 능력(strengths)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가족기능은 미래사회에서도 어떠한 조직과 체계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닌다.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은 생존할 것이며 새로운 가족기능이 강화되어 미래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확실한 기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사회에도 저해책 가정에 대한 가족정책은 영구적 정책(immortality policy)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2000년대에도 가난과 결핍상태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해책 가정은 존재할 것이며 부와 여가를 만끽하는 가정이 공존할 것이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과 가치가 자리잡혀서 덜 가져서 더 주고 더 힘든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연대의식이 보편화될 때 우리 사회는 지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저해책 가정도 우리의 미래사회에서는 평균적 가정이 수행하는 중요한 가족기능 즉 사회가치 및 문화창출의 기능, 자녀사회화의 기능, 민주적 가치창출의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온전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의 교육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미래가정이

인간의 황폐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기제라면 인간중심의 가정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부모는 아무런 준비없이 그 기능을 잘 해낼 수는 없다.

물론 가정의 교육기능을 가정교육이라 단순화시킨다면 "부모의 의도적 교육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일상생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가치관에 의해서도 가정교육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미래가정의 교육기능은 보다 적극적인 인성의 창조개념으로 확립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적극적인 가정교육담당자 또는 가정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교육의 목표와 가치관에 관한 폭넓은 부모되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모의 몫으로 묶어두어서는 안된다. 가정교육이 취업모의 증가현상으로 약화 내지 부재하다는 평가는 기존의 성역할분업 원리에 기초한 논리이므로 적절한 분석이 아니다.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될것은 너무나 확실한 추세이므로 가정의 교육기능은 부와 모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기업체내에 남성사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가정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한국일보, 1993. 9. 6).

여섯째, 기업·공적부분의 작업계획(work schedule)이 조정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업세계에서의 기존의 작업스케줄은 남성은 직장, 공적부분 그리고 여성은 가정, 사적부분이라는 이분법적 역할개념에 의해 짜

여진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미 보편적 삶의 모습이 되어 가고 미래사회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남성의 가사참여 현상도 훨씬 보편화되어 갈 전망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모델'과 '남성의 평등한 가족참여 모델'이 점차 낯설지 않게 될 미래사회에서는 가정내외적 남녀역할 변화 모델에 적응시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세계 가정의 해' 준비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각국이 '세계 가정의 해'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지역회의에 발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경아·태지역 준비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하고(1993. 5.24~28), 국내적으로는 여협이 오늘의 본 세미나를 마련하며, 여성개발원에서는 94년도 '세계 가정의 해'에 즈음한 가족관련 세미나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UN이 권고한 「국가조정위원회」는 발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정의 중요성'이 세계적 차원에서 관심을 함께 모으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 발달 내지 과학기술 발달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그 역기능이 인간생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국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심장인 가족의 건강을 존속'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인간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 특집 / ⑤발제강연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가정

류태영 (간국대 부총장)

이스라엘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여성이 교육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를 수태하여 임신부로 있을 때 부터 이 아이는 유대민족의 씨라는 것과 선민의식을 정신적으로 스스로 의식화하는 데서부터 유대민족으로서의 선민의식과 긍지, 유대민족정신을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시킨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개척정신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양함은 물론 사막과 건조지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교육은 「유대인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종교교육에서 부터 비롯하여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 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따라 생후 8일만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종교교육과 유치원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을 거쳐 각종 청소년교육과 성인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인교육의 주체와 가정교육 또는 종교교육의 주관자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여성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유대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민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유대여성인 낳은 아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법률까지 만들었다. 이중 성인교육의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이후의 성인교육은 세계각국에서 모여드는 유대인 이민들의 사회



적 문화적 통합의 한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해외에서 이주해 온 모든 이민은 울판(Ulpan)이라는 히브리어 학원에서 6개월간 생활하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국어인 히브리어와 유대인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활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는 곧 훌륭한 이스라엘 시민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산업발전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직업교육으로서의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유대인 성인들은 각 교회와 종교학교에서 주관하는 토라연구와 주일학교에 참여하여 성경과 문학, 역사, 문화 등을 공부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국방군 교육도 성인교육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군 교육은 방위교육 이외에 정신교육으로서 일체감을 강화하고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현대사회에 시민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군인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분류되며 그 정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기브츠교육도 이스라엘의 국민교육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브츠사회는 협동사회이며 자발적 사회이고 평등사회, 참여사회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목표의 이행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기술과 과학적 방법과 최고의 자격을 갖춘 지적 노동자를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와 가족의 기능

이옥주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1990년부터 세계는 탈이데올로기시대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길 기회를 갖게 되지만 가족 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족관계를 개발하고 가족원은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있어 가정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정의 여건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지에 의하여 설계되고 발전될 것이다.

2. 현대 가족의 의미

가정은 일생을 통해 삶의 기초가 되는 사회조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 서부터 가족의 일원이 되고 결혼을 통해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산업사회로서의 발전을 계속해가고 또한 정보화사회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오늘날 사회적 가치는 다양화되고 민주

화되면서 가족의 의미와 구조, 기능은 변화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회변화는 가족구조 및 기능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의 구조로 축소시켰고 여성의 노동력이 산업장에서 요구됨으로써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급격히 증진됨으로써 여성의 자아의식이 고취되고 이에 전통적인 가족의 여성의 역할보다 사회진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계속적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와 중첩됨으로써 자아개발의 과정은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여성이 사회참여를 원함에 따라 여성자신의 역할갈등의 해소방법으로 주부로서의 역할을 남편과 분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자녀양육, 가정교육, 가사 및 가정의 결정권까지 부부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소유하게 됨으로써 가족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 사회건설의 미래지향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교육의 큰 특색은 유대교 성서에 기본을 두고 다양한 복합문화 속에서 통일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 산학협동체제의 실현 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사회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교육입국의 기본사상 아래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의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다같이 느껴서 교육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교육발전이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스라엘 교육정신은 개혁정신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양하였다. 그리하여 사막과 건조지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어 농업발전을 이루어갔다.

둘째, 이스라엘 교육은 우리가 관심 깊게 다루고 있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유대교라는 종교적 전통과 풍속에 따라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청소년운동 등 사회에서 히브리어와 유대풍속과 전통 및 히브리 문화를 전수하고 이를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은 교육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교부에서는 교원들의 봉급과 인사 그리고 교과과정

지역자치제에 의하여 운영되며 지역 사회학교 교육을 최대한 실천하고 있다.

넷째, 교육의 기회균등을 최대한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시민은 유대민족이 아니더라도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전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아랍인을 위한 학교를 국립에 편입시켜 똑같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과외특별수업 등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다섯째, 이스라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느끼도록 강조하는 유대인 의식 교육을 유아때부터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얼을 지키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에서 이 유대인 의식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애국심이 강하게 되고 국란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힘이 융숭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여성이 교육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를 수태하여 임신부로서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유대민족의 씨라는 것과 선민의식을 정신적으로 스스로 의식화하는 데서부터 유대민족으로서의 선민의식과 긍지, 유대민족정신을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시키고 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정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기 쉽게 분석하여 설명하면서 굳건한 다짐을 하도록 기

회를 부여하며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기회를 애써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니 스스로가 철저한 애국애족하는 현모가 되며 민족혼을 불어 넣는 훌륭한 민족 스승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본인의 행동이 다른 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전승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1. 머릿말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2000년대를 예상하고 다각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른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100년, 200년간의 변화를 이제는 10년 이내에서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사회와 세계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자율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해가며 이룩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구조의 최소단위로서의 가정도 10년 후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가족과 사회는 과거의 가족과 사회의 틀위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때 미래 사회에

또한 의학의 발달은 인간수명을 지난 50년 동안에 20년 이상 연장시켜 줄으로써 노인문제 등도 가족의 문제가 되었고 결혼생활의 연장은 이혼율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형태, 구조, 기능의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결손가족으로서의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성년이 가장이 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체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새로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의 해방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증가시켰고 사생아 출생 등 사회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가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의 고유한 기능을 Murdock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형적 가족은 성적통제기능, 생식기능, 자녀양육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가족은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결혼을 통하여 이룩되며 부부관계는 사회가 용인하는 유일의 성적욕구충족을 시키는 관계로 모든 문화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욕구충족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사회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도 혼전성교,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제재가 약화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의 고유 기능으로서 생식의 기능은 부부의 성생활 결과로써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은 인공수정 등 방법으로 사랑을 기초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출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족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현재 발달된 사회구조로서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은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다. 자녀의 생리적 욕구 충족뿐 아니라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은 가정 뿐이며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인간성장 발달과정에 따라 필요한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지적·정서적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랑을 기초로 한 부모 자녀관계는 그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자아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형성에 필수적 조건이 된다.

과거 씨족사회, 부족사회에서의 정치·경제·사회·교육·오락·종교의 기능은 국가사회로의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로 이전된 것이 많다. 오늘날 경제 활동에서 산업사회로서의 특성상, 생산은 가족기능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되어 발전되었고 오직 소비활동만이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이 되었다. 가족기능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오락이나 휴식도 가족 이외에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가정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의 종교적 기능조차 종교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의미나 가치가 변모하고 있다.

3. 미래사회에서 한국 가족의 기능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정치경제사회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과정을 고려하여 미래사회, 적어도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가족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부터 세계는 탈이데올로기시대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길 기회를 갖게 되지만 가족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족관계를 개발하고 가족원은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여 특히 성차별의식의 철폐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 개발 및 인간관계 친밀성 강화가 가치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체제를 미래사회에 적용하도록 가정교육 담당자인 부모가 인식하여 이에 대한 준비교육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증가는 자원결핍을 초래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간의 무궁한 신체적·심리적 욕구충족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좌절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는 적응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욕구통제능력을 키우며 또한 욕구충족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형성이 요구된다. 이는 가족의 교육기능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의 발달속의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는 지적능력기술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미래 가족의 기능 중 중요한 것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능력, 기술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이는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보다 직업생활에 적응을 요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넷째, 인구증가에 따라 생존경쟁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개인간·집단간·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는 능력위주의 사회로서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지식의 습득, 기술의 습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기심이 강화됨에 따라 협동의 효과를 망각하며 더 나아가 서로를 해치고 사회조직의 응집력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도 나타나고 개인주의, 집단 이기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인간이 서로 애정과 화합을 통하여 인간 최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강화하여 인간관계가 사랑을 기초로 협동심을 가지고 이타심을 개발함으로써 가족내 인간관계의 조화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인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가족간의, 친족간의 또는 집단간의 경쟁심은 가족으로서, 친족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인 안식처로서의 기능도 마비시킬 것이다. 경쟁적 사회에서 낙오될 때 정신건강의 가장 무서운 적인 고독으로 정신건강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산업사회에서는 군중속에서의 고독이 문제되고 있으나 현재는 가족 속에서 고독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예로 주부 부재, 어린이 아파트 열쇠목걸이등을 들 수 있다. 가족원이 사회에서 받은 긴장, 억압, 피로를 풀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 보충을 위한 가족의 재충전기능을 강화시킬 때 가족원의 정신건강이 유지될 것이다.

다섯째, 고도의 기술개발, 과학의 발달은 인간관계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각 가정의 오락담당자는 TV나 음향기기이며 아동의 놀이감은 컴퓨터인 경우가 많다.

미래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때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를 갖기보다 기계와 관계를 맺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인간성의 황폐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때 가족내의 성원간의 특히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 애정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군중속에서 고독이 인간화에 문제로 제시되었으나 정보화 사회인 현재는 가족내에서의 고독이 문제되고 있다. 가족원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가족이외에서 충족될 때 가족간의 소외감이 증대되고 정신적으로 유약한 가족원은 고독으로 인한 정신적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세계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혁은 우리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변용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2차대전 이후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무너지고 우리의 적국으로서의 대명사였던 소련과의 관계도 2000년만에 소련합정이 친선사절로 부산항에 입항하고 이에 우리는 환영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미래사회가 가족, 지역 사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응해야 할 수준은 이미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정치적·경제적 활동은 이미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족의 교육적 기능은 아동들로 하여금 국제화시대에 걸맞고 거시적 안목을 갖는 삶의 목표를 갖는 가치관과 태도육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조건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즉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며

자녀들에게 예견이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창의력, 사고력의 개발 및 육성이 요구된다. 유연한 자세로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족관계에서 키워가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UN은 1994년을 '가정의 해'로 정하였다. 이는 인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데서 출발된 계획이라고 보여진다. 즉 현대 세계에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인류는 자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간행동은 극도의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응용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인간성의 황폐를 초래하며 인류의 종말로 치달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을 자각하고 각 개인이 인류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인간성 회복이 강조되고 이 인간성 회복의 장은 가족임을 자타가 인정함으로써 가족의 중요한 기능회복 즉, 사랑과 애정을 기초로 한 인간관계 회복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와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그 변화속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의 기능인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휴식안식처로서의 기능, 건강한 성격형성의 장으로서 가정이 제무장될 때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가족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국의 가정

이연숙 (본회 부회장·국제존티서울클럽 회장)

앞으로의 가정은 가족 개개인의 자아확대 권리존중을 근거로 한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랑의 실현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배우자나 부모 자녀로서 느끼는 충족감을 증시하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만끽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I

유연이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NGO(비정부기구) 포럼 주제를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가정의 향상"으로 정하여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말타에서 세계 민간단체 지도자들을 모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거의 가정이 현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관계로 묶여있던 부모·자식관계도 상대적인 존재로 해이해진 관계속에서 과거의 가치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갈등과 비극이 동서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달 우리를 아연실색케 했던 부모살해사건이라든가 미국법정에서 친부모 아닌 양부모를 선택한 자식의 권리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2,000년대의 가정을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바람직한 것으로 돌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이다.

어느 여성 단체가 주관하는 국제 토론회준비모임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례로 논의할 주제와



토론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주제: "2000년대의 가정"(여성대 회 주제와 같음)

월별제목:

"가정의 가치, 변화하는가?"

"가정에 끼치는 돈의 위력"

"아버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 그들에게 권리는 있는가?"

"노인들,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가정, 내일의 원천"

이 제목들을 여기에 나열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가정이 당면한 문제

점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이해를 초월한, 가족이 모여서 상호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족간의 배려와 포용,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근거로 동질성을 조성하고 인생관과 가치관, 사회정의에 대한 시각에 이르기까지 합일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여야 하는데 오늘의 가정은 생활의 일부에서 미움과 갈등, 원망과 불만, 좌절과 소외 그리고 물이해가 서서히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부모·자식간에도 대화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원만치 못해서 반목하고 실망하며 세대차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를 격앙기 보다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고립되는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이다.

지난 달 농경사회의 가정은 생산의 장이었고 확대 연결된 대가족의 구성은 그 자체가 사회생활이었다. 산업화 사회의 가정은 상당히 그 의미와 역할이 달라져서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안식처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그 가정이 가족을 편히

쉬게 하고 다음날 또 다시 활기차게 사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 전원이 마음과 몸이 편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행복이 가득하고 모두가 호뭇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대부분의 가정은 어떠한가?

가부장적 전통사회 관습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짊어지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자리가 아무리 권위의식으로 무장해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시간적으로 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서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도 타인들의 동거처럼 나타난다. 아이들은 성공지향적 부모의 채찍질과 입시위주의 사회적 발달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인생을 체험한다.

노년층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하다. 젊은 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다 쏟다보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사회변화는 그들이 마음편히 안주할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손자의 공부방을 제공하기 위해 쓸쓸히 자살한 할머니의 얘기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가정의 장유유서, 위계질서와 남녀 유별의 차별관습, 전통을 존중하는 미종양속 등 지금까지 승계되어온 가정의 틀이 사회의 변화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사회는 다원화하고 이질화되며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말아하던 자녀교육은 자녀의 친구 또래들, 대중매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전달받는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들이 습득한 삶의 방식은 부모의 것과 서로 달라서 마찰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안에서 부모의 대자녀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자녀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과 목표는 전혀 다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던 정성과는 판이한 방법으로 자식에게 부양받는 노년층의 실망과 노여움은 가정을 불편한 곳으로 느끼게 하고 그 불편함은 온가족에게 몸짓으로 전달되어 모두가 민감해지게 마련이다.

긴장된 가정 분위기에서 살 수 없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탈가정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II

오래간만에 우리가 선택한 문명정부의 기치는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

어제와 다른 신한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어떤 신한국이 오려나 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세에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한몫을 찾아서 실현하는데서 와야 하는 것이다.

남이 가져다 주는 "신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신한국"은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살고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 서로 믿는 분위기에서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며 자기의 생각도 펼치지만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의견도 귀기울여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사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

그러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 가장 작은 사회 단위, 가정에 서부터 민주적인 관계를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신한국의 첫번째 과제는 가정의 민주화이다.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잘난 사람스럽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여 그 실천과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시민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가정의 민주화는 가장 시급한 "신한국"가정의 과제인 것이다.

가정의 주축을 이루는 부부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민주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지시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차간에 대접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 자녀는 민주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원만한 행동과 관계를 체험하고 실천하게 된다.

부모의 평등사상만이 남아 선호사상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잘못된 성차별 관행을 극복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국 가정의 두번째 과제는 아버지가 함께 하는 가정이다.

한국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도 가정에서 편히 쉬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산업화에 따라 가정의 생산적 기능이 사회와 시장기능으로 빠져 나갔다. 종전에 여성 몫이던 식품제조, 저장, 방직, 방적, 의류제작, 간병, 교육 등의 역할이 공장, 병원, 학교 등으로 흡수

되었으나 밖의 일은 남성이 맡았던 관습 때문에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몫까지 남성에게 맡겨져 남성의 작업 분량이 남성의 일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 버렸다. 결국 일을 놓친 아내, 일을 빙차게 맡은 남편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받게 된 것이다. 남편이 힘겹게 짊어진 일을 여성이 나누어 맡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하고 남성은 가정의 완성을 위해 가정에서 가정인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 신한국 가정의 과제는 아버지의 가정생활 참여 확대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는 가정이다.

세번째 신한국 가정의 과제는 자녀들을 책임있는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돌려 주는 일이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주역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 주도적인 입시위주의 준비교육, 그에 따른 조기교육열과 과잉보호, 과다교육, 편과지식주입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정교육의 부재현상을 물리쳐야 한다.

앞으로 열리는 사회는 부모의 가치관의 근저인 좋은 대학출신이 성공으로 직결된다는 신화를 송두리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이 요구하는 덕목은 화목한 민주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정에 얽여 배우는 애인관계, 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품성을 으뜸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변해가는 사회속에서 민주화와 아버지의 가정참여, 어머니의 사회진출, 자녀의 자아실현 결정권리 행사, 노년층의 적절한 위치부여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고 안정된 가정은 가족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여 전체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모에게 다달받고 등으로 밀리기보다 함께 어울리고 자기나름의 문화와 가치를 부모의 가치와 체험에 접목하여 생각이 달라도 이해할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 한다. 그들의 행복을 구실로 어머니가 주도하여 부모가 함께 맺은 자녀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성장을 설계해 가는 꿈을 돌려줘야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절규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으로 다른 힘에 끌려가지 않는 주체성있는 민주시민의 바탕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인생을 과거적인 가치에 근거를 둔 부모의 의지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한국 가정의 과제는 노인이 편한 자리에 있게 하는 일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노년의 기대와 성장한 자녀의 부담관계가 달라졌다. 노년층의 무제한적 자녀의존은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가정기능이 이제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것이다. 자녀수의 격감과 가족수의 감소로 노부모의 전적인 뒷바라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이제는 노인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할 때가 왔으나 그러한 시기가 오기까지 가정을 편한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관계는 상호의

존적인 것에서 상호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유지에 힘써야 한다. 노년층에 진입하기 전에 노후자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대와 실망, 부담과중에 따른 한계의 노출 등은 유교적인 전통사회의 가치로는 있을 수 없던 일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근대에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년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환자와 정신적 신체적 부자유자에 대한 가정보호의 한계도 가정의 핵가족화로 부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회나 국가의 도움없이 이러한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신한국 가정이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황금 만능주의와 출세 지향주의를 물리치는 일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쳐서라도 나만을 위하여 돈을 움켜쥐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가정도 사회도 건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 정당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벼락부자가 되어서 흥청거리며 사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잘못된 돈승배가 오랜지족이 판을 치게 하고 수많은 교육기관과 공신력을 생명으로 유지해온 국가기관의 위신과 신용을 추락시켰다. 신한국에서는 그러한 행태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신한국은 떳떳하고 의연한 삶을 높이 평가하고 근거있는 치부해야 인정받으며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틀이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하겠다. 자존심을 걸고 정직하고 건전하게 사는

가정만이 좋은 사회인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III

앞으로의 가정은 가족 개개인의 자아확대, 권리존중을 근거로 한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랑의 실현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배우자나 부모 자녀로서 느끼는 충족감을 증시하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만끽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사의 노동화, 컴퓨터의 생활화, 로봇의 단순노동 대행 등으로 가정은 가족의 소비기능을 강화하고 부부간의 성생활 만족도를 추구하게 되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를 공고히 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의 기능을 더욱 더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변해가는 사회속에서 민주화와 아버지의 가정참여, 어머니의 사회진출, 자녀의 자아실현 결정권리 행사, 노년층의 적절한 위치부여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고 안정된 가정은 가족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여 전체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안정속에 정직하고 올바른 반부패 반부정 가치관이 형성되고 생활화될 때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런 나라로 부상될 것이다.

IV

우리는 오늘 제30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가정이 바뀌어야 할 필연성을 적시하고 "신한국의 가정"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신한국 가정"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이에 덧붙여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의 충실한 가정인 생활 실

천을 촉구하고자 한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사회 지도층으로 존재하는 일이 신한국에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우리의 민주시민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모든 지도자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민주적인 부부,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 가족의 존경을 받고 가족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정인만을 선출해야 하겠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활약상에 비중을 두어 관대하게 넘겨왔던 가족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지도자, 여성을 비하하는 지도자,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들은 가정을 사회안정의 기반으로 안정시키려는 여성의 의지로써 철저히 배제시키고 올바른 가정인을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굳건한 나라 만들기에 우리의 힘을 합쳐야 하겠다. 가정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원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30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

‘2000년대의 가정’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3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우리 여성일동은 새로운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창출해내는 일에 앞장설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가정이 인간존중과 사랑, 도덕성 등 인간의 기본적 품성을 기르는 장임을 깨닫고 부모가 함께 민주적인 가정을 가꾸는 일에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주부들의 가사노동과 가정관리가 정당히 평가되어 세법 및 사회제도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가정이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21세기의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과잉보호, 과다한 교육열에서 탈피하여 창의력과 사고력 발달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여성은 자존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 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993. 9. 23.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제30회 전국여성대회 건의문

제3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우리 여성 일동은 정부가 여성관련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온 것에 감사하며 가정의 중요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의 구현과 우리가 지향하는 신한국 건설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정부는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준비를 위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의 심장인 가정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보육시설의 보편화,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확대, 가정간호제도 구축, 가정상담, 정보제공 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국회는 여성정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회내에 ‘여성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가족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 인정하도록 세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탁아 및 가정관리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대중매체, 교과과정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등 기존의 관련위원회에 일정비율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채용, 승진, 배치, 연수, 포상,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차별관행의 철폐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남녀차별의 비민주적 관행과 제도를 제거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3. 9. 23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특집 / ⑦준비위원회

제30회 전국여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대회장: 김경오(본회 회장)

부대회장: 이연숙, 정연심, 김옥환(본회 부회장)

준비위원장: 김옥환

운영위원회: 상임임원 및 이사

용신봉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오

위원: 김장숙(전 국회의원), 이계순(전 정무제2장관), 이운경(전 국제존타 서울클럽회장, 한국병원 내과과장), 이윤자(전 국회의원, 전국주부교실연합회 회장), 이연숙, 정연심, 김옥환

올해의 여성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오

위원: 김영신(연합통신 문화부장), 김정자(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연준(교육방송 원장), 이연숙, 정연심, 김옥환

프로그램 위원회.....위원장 박영혜(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위원: 김기업(전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정호(대한간호협회 회장, 본회 기획위원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이옥주(서울여대 교수), 조선형(전 대전여협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이연숙, 정연심

재정위원회.....위원장 정연심

위원: 김경애(본회 회계이사), 김순자(대한미용사회 경기지회장), 백남희(세방여행사 이사), 백혜자(서초구 평통위원), 안윤정(앙스모드 대표), 이경숙(그린골프 대표), 최운학(미가람화장품 대표), 한지영(에스키스 한지영 부띠끄 대표)

진행분과위원회.....위원장 박정호(대한간호협회 회장)

등록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옥기(대한조산협회 회장)

문상회(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회장)

식사분과위원회.....위원장 윤수자(교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안내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숙(한국퇴역여군회 회장)

유인물분과위원회.....위원장 정정순(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

평일 저녁 7시대, 쇼 연예 비중 줄여야

연예인들의 여흥을 통해 공부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쇼, 연예의 프로그램을 모두 백안시 할 수는 없다. 다만 일주일 내내 똑같은 프로가 같은 시간대에서 세방송사 모두에서 방송된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쇼, 연예의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각 방송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는 9월 21일 모임을 갖고 주중의 저녁 7시 시간대의 SBS, KBS2, MBC의 청소년 대상 쇼, 연예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토론했다. 이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모니터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프라임 타임의 청소년 시간대인 이 시간에 연예, 오락 프로그램만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그 전후 기간도 참고하였다.

1. 오락 기능만 강조

평일 저녁 7시 시간대의 TV 3사 프로그램은 거의 예외없이 연예, 오락 일색이다. 출연진은 개그맨, 가수, 탈렌트이고 내용은 연예가 잡담, 게임, 노래, 개그이며, 방청객은 십대청소년으로 기본 포맷이 똑같은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나 방송사의 색깔이 거의 없다. 표1을 참고해 보면 제목에서부터 진행자, 출연진의 면면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중심으로 되어 있



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TV 프로그램이 TV의 다양한 기능 중 오락기능만을 강조한 점과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똑 같은 시간대의 비슷한 내용의 편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프로그램의 방향성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연예인의 사생

활에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SBS의 「내가 진짜 스타」는 국민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흉내를 내게 하고 MBC의 「결정 최고 인기가요」(9월 17일)에서는 전 진행자인 김연주의 임신 사실을 담당의사까지 동원해서 알려주고 있고 연예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아이들까지 연예인화시켜서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또한 SBS의 「새내기 출동 큐」에서는 연예인의 잠자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의사의 진단까지 곁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파매체를 타고 안방에까지 전달될 만한 것인지, 다양한 욕구와 형태를 지닌 청소년 문화중 저급한 문화만을 확대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방송기능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3. 준비없는 내용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는 이유는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용을 보면 일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몇몇의 연예인

들이 요일과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대거 등장한다. 45분 진행에 주 진행자 1-3명, 보조진행자 3-5명, 그리고 매 코너마다 진행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 출연자가 따로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소개하고 서로 간단한 인사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정작 주된 내용은 소홀히 취급되어 버리고 결국 무리지어 등장한 그들의 한마디 씩으로 프로그램은 끝나고 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의 출연 자체만으로 45분을 채울 수 있어 특별한 준비가 없이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이 짙다.

4. 산만한 구성과 진행

진행자와 출연진이 너무 많아 그들의 구별이 우선 모호하고 전체가 소

〈표1〉

	SBS	KBS	MBC
월	「새내기 출동 큐」 진행: 김건모, 신동엽, 김원준 출연: 옥소리, 김명수, 이상아 코너진행: 홍목기, 이동우	「뮤직 스테이션」 진행: 이지형, 김현아, 이경심 출연: 다운타운가 DJ들	「전격! 팡팡쇼」 진행: 정원관 보조진행: 서춘화, 만복이, 민현준 출연: 엄혜경, 라종민, 서승만, 칼라
화	「열정시대」	「TV 잡지 달려라 고고」 진행: 최상진, 유재석, 무아 출연: 노이즈, 정재은, 신수경	「퀴즈여행! 달려라 지구촌」 진행: 이홍렬, 이상아 출연: 김홍국, 방실이, 정원관, 신신애, 조갑경, 이하원
수	「내가 진짜 스타」 진행: 송선경, 김학래 보조진행: 김형곤, 최형만, 이용호, 도원경	「생방송 가요 토크」 진행: 손범수	「이야기쇼 만남」 진행: 이수만, 김승현 출연: 이창훈, 고소영, 최민수, 박선영
목	「깜짝 비디오쇼」 진행: 최양락, 이봉원 출연: 듀스, 홍목기, 탁2준2, 김경식, 이동우, 이덕진	「연예가 중계」 진행: 장덕균, 이연경	「쇼! 스포츠」 진행: 장재근, 강연희 출연, 보조진행: 방은희, 김성일, 정명환, 이해진, 채유미
금	「빙글빙글 퀴즈」 사회: 최선규, 장진경 출연: 김홍국, 고영수, 홍서범, 미본, 공선영	「청춘 스케치」 진행: 변진섭 출연, 보조진행: 김준선, 강수지, 배동성, 코미디 아웃사이드	「결정! 최고인기가요」 진행: 박상도, 궁선영 출연: 김홍국, 잉크, 탁2준2, 듀스, 김원준, 김건모

제목을 붙인 코너들로 나누어져 본래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피상적으로 빠른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깊이있게 내용을 다루는 코너가 한 코너도 없게 된다.

MBC 「쇼! 스포츠」(8월 20일)에서 행글라이딩을 배우는 코너가 있었는데 출연자들의 과장된 실수 장면 등에 웃음을 맞추고 있어 정작 행글라이딩을 탈 때의 주의점이나 필요사항들과는 거리가 멀어 전달코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것도 내용 구성상의 문제라고 본다.

5. 구색으로 끼워넣은 건전내용

중간에 1, 2개 정도의 건전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극히 짧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고 앞뒤 내용과도 맞지 않아 지나치게 오락, 연예 위주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생각이 든다.

KBS2 「TV 잡지 달려라 고고」(9월 14일)에서는 「신세대 열린 광장」에서 불쌍서적에 관하여 학생들, 서점주인의 이야기 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스타 선물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방청객들에게 주는 선물로 인형, 가방, 시계 등 앞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선물들로 바로 앞의 감명깊게 읽은 책들을 선물로 준다면가 했더라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내용도 살리고 일관성있는 진행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리라 생각된다.

SBS 「깜짝 비디오쇼」(9월 16일)에



서는 미아찾기 캠페인 코너가 있었는데 미아사진과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려서 미아를 찾아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또 거리에 나가 시민들의 당황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주면서 실컷 웃음거리로 삼은 후 '촬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6. 출연자들의 언어, 태도, 복장

출연자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탓에 사석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한 다거나 반말내지 반존대어 정도로 하는 것도 공공방송에서는 자제해야 하겠고 카메라 가까이 얼굴을 디밀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것도 삼가했으면 한다. 9월 17일 MBC 「결정 최고 인기가요」에 나온 김건모의 배꼽이 보이는 옷차림 등은 보기에 민망했다. 프로제목도 「(느낌표)」가 많은 우리말과 영어의 혼용어가 많고 '사랑하십니까'와 같은 어법에 맞지 않는 조어를 만들어내 아무 때나 사용하고 있는데 방송의 기능 중 정확한



국어 사용의 보급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주요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7. 기타

SBS의 「빙글빙글 퀴즈」의 'N.G 요리'는 요즈음의 음식쓰레기 문제나 지구촌의 기아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의식없는 발상이라 생각되고 특정 음식점(「동보성」, 9월 17일)의 선전도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한가지로 KBS2의 「TV 잡지 달려라 고고」에서 그를 겸의 의상(「미찌코 런던」, 9월 14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체 내용 중 영화, 음악, 정보의 비중이 너무 크고 출연진은 거의 대부분 남자인 반면에 방정식은 그에 환호하는 여학



생들인 점은 성차별을 드러내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8. 개선안

연예인들의 여흥을 통해 공부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쇼, 연예 프로그램을 모두 백안시 할 수는 없다. 다만 일주일 내내 똑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서 세방송사 모두에서 방송된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쇼, 연예의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각 방송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별로 개선안을 예로 들면 「뮤직 스테이션」의 경우 연대, 시대별로 인기있던 노래들을 들려줄 수도 있고 「빙글빙글 퀴즈」는 세계 각국 요리의 특색을 소개하며 요리법도 함께 곁들일 수 있을 것이다. 「쇼! 스포츠」도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그 시간에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여행, 독서, 미술, 음악 등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정리: 육선희 (문화 매스컴모니터)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I)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 강사)

한때 "여성이어 잠꾸러기가 됩시다!"라는 화장품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무슨 의미인가? 여성은 인간적인 잠재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기 보다는 잠을 충분히 잠으로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훨씬 보상이 많으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Sunlana
STRETCH YOUR BODY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삶의 방식이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제도, 관습, 문화 등에 의해서 개인이 내면화 하기도 하고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강요시키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여성을 제한하고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여성은 고통과 억압을 경험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부장제와 이 토대 위에서 형성된 문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통하여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 태도, 기대 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들을 찾아 보고자 한다.

가부장제는 처음에는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의 한 체계로서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급진주의적 여성해방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성 차별주의 이론으로서 다루

어지고 있다. 가부장제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e Millett은 가부장제 사회는 성의 정치적 사회라고 보고 있다. 그녀는 한나 아렌트의 이론-정무관 합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던지, 또는 폭력 등의 강제수단에 의해서 지지를 얻어 내었던 지간에 권력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가부장제도 바로 남성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됨을 주장하였다. 남성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성의 정치는 기질, 역할, 지위의 측면에서 남, 여성을 가부장제의 정치형태로 사회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합의를 얻고 있다고 그녀는 보았다. 남녀의 기질은 지배집단의 필요와 가치관에 의해서 성별범주로 고정시켰다. 남성은 공격성, 지적인 능력, 힘, 효율성등이며 여성은 수동성, 무지, 온순, 덕성, 비효율성등으로 자연적, 또는 신의 의지나 뜻으로 해석하고 이에 기준하여 남, 여성을 사회

화시킨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주는 두 번째 수준은 역할이다. 가사와 육아의 생물학적 경험의 차원과 인간적 관심과 야심등의 인간적 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양성에게 배분한다. 지위는 이러한 것들의 결과이다. K. Millett은 이상을 가부장제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Gerda Lerner는 가부장제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부장제는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배집단과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종속집단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온정주의적 지배라고 표현된다. 가부장제적 지배는 상호 의무와 상호 권리로서 완화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명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계약이다. 남성은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여성은 매사에 있어서의 복종과 성적인 봉사, 무상 가사노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는 남성이 계약을 불이행할때도 지속된다. 그

리고 가족내에서도 책임과 의무가 피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성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복종은 그가 가장이 될때까지이며, 일시적이다. 그러나 딸과 아내의 복종은 평생동안 지속된다. 단지 딸의 경우는 어린시절과 성인시절로 나누어 그녀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바뀔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내면화하는 것과 여성들 자신의 투쟁과 성취의 역사에 대한 여성의 무의식 때문이라고 G. Lerner는 보았다. 두 학자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여성지배이며 성에 따라 배분된 역할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의 심리적 열등감의 내면화이다. 그러면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의 위치를 존속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광고, 동화, 포르노그래피, 영화 등에서 찾아 보겠다.

광고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광고에 대한 연구는 광고가 기존문화를 강화시키느냐 또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느냐 등의 논의와 광고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토론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광고



는 막대한 교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광고의 주 목적은 상품을 파는 것이지만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함께 가치, 태도, 이미지, 정상적인 것, 성공, 사랑, 성 등의 개념도 함께 판다. T.V에서 보여주는 광고의 기본요소는 핵가족, 성공한 남성, 아름답고 젊고 날씬한 여성이다. 첫째 광고를 통해서 이 시대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아름답고 젊고 날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들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소비자가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완벽한 상품을 원하는 것처럼 여성의 아름다움도 완벽함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광고의 여성주인공의 얼굴은 주름살, 흉, 점, 땀구멍도 없는 가면같은 얼굴이다. 한때 "여성이며 잠꾸러기가 됩시다!"라는 화장품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상적인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잠꾸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의미가? 여성은 인간적인 잠재력, 능력,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기 보다는 잠을 충분히 자므로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훨씬 보상이 많으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광고는 한 젊은 여성이 승용차 안에서 예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다. 그 뒤에 트럭을 몰고 오던 한 남성이 자신의 진행방향을 방해하고 있는 앞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항의하려는 자세로 거칠게 앞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차창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기분이 좋아져서 환한 표정이 되어, "앗! 미인이시군요!"라고 감탄한다. 여성은 미인이기만 하면 모든 자원을 가진 남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몰염치한 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여성의 모든 소망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여성이 미인이 된다는 것은 생존의 경쟁터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는 것이며, 권력과 교환될 수 있는 고가의 화폐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광고는 현대의 가부장제 문화가 사로잡혀 있는 욕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것은 변함없이 "잠자는 공주"는 여성의 영원한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다음에는 마른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이다. 이것은 뚱뚱한 여성에 대한 경시와 연결된다. 여성이 뚱뚱하다는 것은 타인의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며 코메디의 소재가 되고 있다. 여성의 시대적 소명은 바로 광고가 제시하는 규격화된 날씬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의 여성은 현실의 살아있는 여성이 아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조명에 의해서 특정한 순간에 고착되어 있는 조직된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을 이상형이라고 전 나이의 여성들이 받아 들여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단식원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경계선까지 가야만 한다. J. Killburn은 여성은 스스로 굶어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여성의 몸매에 대한 의식 조사나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몸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상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자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성이 자기가치나 자기존중을 완성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은 이상적인 몸매를 추구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날씬함과 더불어 여성의 미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젊음이다. 광고는 "같은 동창이라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젊은여성, 나이든 여성을 함께 보여준다. 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식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의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젊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어린소녀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광고는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한 태도를 가진 어린소녀들의 어설픈 행동을 성적인 매력과 결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린소녀들을 포르노그래피화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 사이에서 한때 영계라는 말이 유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젊음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어른 여성에게는, 매력적이 되기위해서는 어른이 되지 말고 영원히 어린소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암시가 되어 이들을 좌절시키고 제한한다. 어린소녀에게는 그들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게 하므로서 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문제로

보는 것은 광고의 잘못된 메시지이다. 여성은 이상적인 미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도달하려면, 여성 자신의 자연상태에서는 보기 흉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므로, 뭔가 사서 여성물의 모든 부분을 변장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이 개선의 대상이라면 동시에 여성은 사물이 된다. 여성의 몸이 사물이 되면 이는 폭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름다움, 날씬함, 젊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여성이 실제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종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Naomi Wolf는 주장한다. 그녀는 이상적인 몸매가 아름다움의 관념은 심미적인 차원의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석하였다.

두번째 광고의 문제점은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다. 남성은 공격성, 무모함, 힘, 야성을 남성의 매력으로 간주하고 여성은 연약함, 수동성, 의존성, 무기력이 마치 여성의 매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사막에서 치한에게 붙잡힌 여성을 구해주는 힘있는 남성,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여성을 헬리콥터에서 뛰어 내려 구해주는 능력있는 남성, 선반위에서 서류를 끄집어 내려는 여성을 비호같이 달려와 도와주는 관대한 남성등등은 남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없는 여성의 보호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지배의 의지를 은연하고 있다.

세번째는 우리사회에서도 이혼율의 상승과 독신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가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직업이 자기실현의 수준, 인생의 장식적인 의미가 아닌 경제적 이유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보여주는 직업여성은 단지 좋은 옷을 입고 나갈 장소만 필요한 여성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성의 직업생활을 경시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네번째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자유, 독립의 문제를 광고는 이용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세탁기, 속옷 등의 광고가 보여주는 것은 마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승리자로서의 여성, 행복하는 남성의 관계가 즉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성의 자유, 독립, 권력이 당장 보장되는 것처럼 수선을 밀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남녀 관계를 방해 할 뿐이다. 이상이 광고가 만든 성차별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것은 가부장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성은 자신을 잘 변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비인간적 차별을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광고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고의 폭발적인 위협성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인간의 복잡한 인생문제도 상품만 잘 고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힘이 드는 여성에게, 여성 자신, 여성의 모든 관계, 여성의 인생에 위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 각자가 자유롭게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특별강연

이 내용은 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준비차 최근 방한한 몽겔라 사무총장 (탄자니아)의 특별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화 시대의 여성의 발전

겔루르드 몽겔라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UN헌장 제1조에 천명된 UN의 목적중에는 첫째로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분야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고 둘째로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도모하고 함양한다는 목적이 있다.

여성의 평등과 성차별 종식은 UN의 창설때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1946년에는 여성지위위원회가 UN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의 하나로서 설립되었다. 초기에 있어서 그 임무는 여성의 전체적 상황을 모니터하고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기타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또 권의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UN의 임무와 여성의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여성지위위원회는 초기에는 여성의 평등권을 함양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제를 정비하는데 주력했다.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정,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정, 1967년 성차별 철폐선언문등이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마련됐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정세가 변화해 식민지가 종식되고 UN 회원국수가 확대되면서 이런 환경은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60년대부터는

보다 광범위하고 발전적인 여성지위 향상상의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런 관점이 80년대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

'평등과 발전과 평화'를 목표로 했던 1975년 세계여성의 해는 여성의 문제를 국제화하는데 확고하게 기여했다. 'UN여성의 10년'과 세번에 걸친 세계 여성회의 이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UN의 주된 경향은 여성문제 그 자체를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통합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성은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책임을 계획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성(gender)은 여성의 관점을 발전계획과 정책, 프로그램과 사업에 통합시키는데 있어서 분석적인 도구와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라는 동떨어진 집단을 다루고 여성문제를 격리시켜 다루었지만 근래의 성 분석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남녀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한다. '어떻게 남녀사이에 권력이 배분되며 어떻게 남녀가 경제활동, 자원배분에 참여하고 거기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요소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성의 분석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발전계획의 수립, 달성,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변인으로서 통합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 즉 빈곤문제, 환경보호, 에너지, 수자원 개발, 보건, 교육, 인권, 민주주의, 평화, 제도 및 능력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있어서 초기에는 여성의 발전에의 통합,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극히 최근까지 대부분 국가의 발전계획은 여성을 간과했고 여성문제를 단순히 사회현상의 일부분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여성을 발전의 주제로 인식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성이 많은 개도국에서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능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은 여성을 경제발전의 중심부에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법제가 정비되긴 했지만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고 간과되고 있다. UN총회에서 1979년 채택된 성차별 철폐협정은 현재 128개국에 의해서 비준되었고 이들 국가는 이런 비준을 통해서 국내적인 법제, 관습,

관행을 여성의 평등과 여권의 함양을 위해 재조정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기술, 재능, 장점들은 사회발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도가 눈에 띄게 낮으며 여기에는 국제협력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여성의 관점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종종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 의해 구속 고통받는데, 특히 군사분쟁과 경제구조 재조정에 있어서 그렇다.

국제화의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정책결정의 수준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여성의 문제와 관점은 국제적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또 상호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 둘째로는 평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평등한 참여와 대표를 의미한다면 국민의 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결정이 과연 민주적인 정통성이 있는 것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여성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이윤을 가져오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UN은 이렇게 현장에 있는 남녀평등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1975년부터 3차에 걸쳐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정부로 하여금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촉구한 바 있다. 1995년 9월 4일~15일까지 북경에서 있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과거 회의에서 대두된 여러 목적에 근거해 그동안 이루어진

업적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국제사회의 가장 상세한 문서이며 2천년까지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에 입각해 여성문제의 종합적인 접근방식에 의거해 95년 세계여성회의도 진행될 것이다.

95년의 세계여성회의를 준비하면서 85년 이후 있었던 전례없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변화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최근 몇년 동안 신국제질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함께 95년 회의에서는 여전히 지역분쟁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그속에서 여성과 아동이 가장 큰 피해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사회분야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실업대책, 투자증대, 빈곤 퇴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여성이 이러한 새로운 경제현실과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하고 경쟁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훈련과 과학기술에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절박하다. 시야를 확대해 2천년까지 남녀가 동등한 삶의 질을 성취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해야 할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과 관련이 없다고 간주되어온 군사,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국제무역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평화에 늘 관심을 가져왔는데 UN 평화유지군이 나 평화협정 등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참여해 왔는가, 여성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국제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기나라의 재정 및 자원개발 정책결정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

세계여성회의와 그 준비과정은 여성이 좀더 성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성이란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가치나 지위,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제4차 UN여성회의에서는 platform for action이 결과적으로 창출되리라 예상된다. 이 platform은 진화적이면서도 혁명적인 문서가 될 것이다. 과거에 수년간 쌓여온 경험에 입각해 세운 전략이자 곧 남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platform for action은 국제사회가 여성에 대해 책임지고 실천해나가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여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편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여성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위향상을 위해 국제사회가 도움 용의가 있지만 또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오늘날 세계는 극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여성의 관점을 정치경제사회적인 구조에 반영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가 바로 새로운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겠다.

여성, 인구정책의 희생자

이영님 (연말통신 외신국 기자)

한 자녀 낳기운동의 폐해는 '여아태아살해'와 남녀의 성비 파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자아기를 낳을 경우 호적에 올리지 않고 아들을 볼때까지 출산을 계속, 무적자를 만들고 심지어 내다 버리거나 낳은 뒤 살해하기까지 하는 비인도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

인도 여성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행되고 있는 가족계획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951년 세계 최초로 국가적인 가족계획을 추진했으나 그 방법을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임시술에 의존,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지난해 이 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신종 피임법인 노플렌트 사용을 비롯, 자녀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인도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조절이론과 세계적인 관행을 지배하는 신랄서스 이념, 즉 급격한 인구증가는 빈곤과 기아, 환경파괴, 경제침체, 정치적 불안정의 1차적, 혹은 유일한 원인이라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이론에 따르면 결국 자식을 많이 낳은 빈민층은 그 자신들의 빈곤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가족계획은 당연히 이 나라의 빈민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들이 소가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기만과 강압, 뇌물 등의 수법으로 피임법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 사업의 전략을 결정한 것은 대부분 자금을 대주는 미국개발원(U.S.AID)을 비롯, 미국내 민간·정부기관들이었다. 1961년 미국측 자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은 목표수치를 정하고 피시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착했다. 예를 들어 각 시술소는 목표량 달성을 위해 불임시술 1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했으며 때로는 피시술자에게 직접 수당을 주기도 했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술소의 직원들은 승진이나 전보 등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때로는 해고당하기도 했다.

"보다 넓은 선택"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실시되고 있는 새 가족계획에는 인도에서 윤리성 논란을 빚으며 실행된 노플렌트의 제한적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인도에서 이 기구가 실행될 당시 시술 대상 여성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실험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지난해 인도에서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영화 "전쟁같은 그 무엇"에서는 지난 89년 노플렌트-2가 기형아 유발과 발암성 우려로 판매 금

지되기 전 그 실험대상으로 사용된 3,500명의 인도여성들의 실상을 담고 있다.

이들은 팔쪽에 피임약을 담은 튜브를 5년간 삽입, 서서히 약이 방출되도록 하는 노플렌트의 부작용에 관해 사전에 경고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적합한 실험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과정도 겪지 않았다.

한 여성은 15일 주기로 심한 출혈이 계속되자 보건당국에 이를 제거해줄도록 요청했으나 2년동안 반응이 없자 결국 개업의사에게 가서야 이를 빼낼 수 있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눈이 튀어나오는 증세를 보여 의사에게 보인 뒤 노플렌트 때문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의사가 소개한 국영병원의 내분비 전문의는 바세도씨 병으로 진단, 즉시 이 기구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아 그녀는 성대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부작용이 따르는 치료제를 쓰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시술받은 여성의 추후 상태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원래 이 방법은 5년 후 기구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들중 많은 여성들은 일정한 주소조차 없는 외지 노동자들이다. 또 제거시기가 다가올 때 따라 불완전한 시술로 자궁의 임신이 된 여성들의 위험도 임박해오고 있다.

인도의 공중보전이 질적으로나 그 적용범위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것은 정부도 시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빈민 여성들에게 전문의의 처치가 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5년 인도 여성운동가들은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사피임제 데포-프로베라의 도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8월 인도내 사용이 승인됐다. 미국의 업존사에서 제조, 배포하는 이 약은 아직까지 미식품의약국으로부터 미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인도 여성단체들은 또 다른 주사제 노리스타트(일반적으로 네텐으로 알려짐)의 수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노플렌트의 사용을 막으려는 인도 여성들의 투쟁은 치열하다. 이 약은 애당초 미국에 본부를 둔 인구위원회가 염가로 저개발국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민간 제조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인도 여성단체들이 델리에서 시위를 벌인 뒤 보건 당국은 이 피임약의 보급을 재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가족계획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앞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 참여율이 높은 케랄라주 한 곳뿐이다. 이곳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고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중보건과 식량유통체제가 비교적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자신이 거둬들이는 임신과 출산의 위험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자녀들을 더 이상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확신할 때라야 비로소 가족계획사업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중국이 지난 79년부터 국가정책으로 1자녀가기를 의무화하자 태아가 여아일 경우 낙태시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녀 어린이들의 성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태아의 성 감별과 낙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자녀수가 하나로 제한돼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통계국이 지난해 9~10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38만5천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성비는 여아 1백명에 남아 1백18.5명으로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였다. 낙태율이 높은 것으로 이름난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비율은 1백13명이다.

이는 지난 90년 조사 때의 1백13.8명, 82년의 1백7.5명에 비해 남아 편중이

크게 심해진 것이며 해마다 전체 여자 태아의 12%인 1백70만명이 뱃속에서 살해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湖北省과 四川省 등 농촌 5개성은 남아비율이 1백20명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해마다 남아가 여아보다 3백60만명 가량 더 태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2000년대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여성보다 7천만명 이상 많아질 것이고 그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남자 어린이들이 많아진 원인은 50원(약7천원) 정도면 쉽게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태아의 성 판별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같은 조치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자녀 낳기운동의 폐해는 '여아태아살해'와 남녀의 성비 파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자아기를 낳을 경우 호적에 올리지 않고 아들을 볼때까지 출산을 계속, 무적자를 만들고 심지어 내다 버리거나 낳은 뒤 살해하기까지 하는 비인도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공직 박탈, 감봉, 배급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국가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불온분자로 낙인찍히게 돼 있어 이에 도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한 자녀 낳기"운동으로 한때 인구 1천명당 43명까지 치솟았던 중국의 출생률이 20명선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은 실종되고 있다.

여·성·계·동·향

‘남녀평등 세계개혁 여성단체 모임’ 결성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세계개편안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한 세계개혁 여성단체 모임’을 결성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단체로 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정치연맹, 여성민주회, 주부클럽연합회, 대한 YWCA 등 17개 여성단체가 참여했으며 공동대표로 김정례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와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소 소장이 선출됐다.

‘남녀평등...모임’에서는 13일 기자회견, 20일 공청회 등의 논의를 통해 배우자간 상속세, 증여세 면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에 의한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각 정당과 국회에 보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새회장에 김옥인 서울여대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58회기의 새회장에 김옥인 서울여대 이사가 선임됐다. 김 회장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농어촌문제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좋은 노래 가꾸기 모임’ 「노래저널」발간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는 문화운동

모임인 ‘좋은 노래 가꾸기 모임(위원장 이종한)’은 소식지 「노래저널」을 계간으로 발간했다. 가을호를 창간호로 발간된 「노래저널」은 앞으로 좋은 노래 가꾸기 사업의 진행 상황과 좋은 노래 보급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방송 및 신문매체와 가요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관심있는 사람은 여성신문 사업부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정무장관(제2)실, 사용자들과 고용평등 간담회 개최

정무장관(제2)실 권영자 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정착을 위해 9월 일 여의도 63빌딩 백리향에서 구로공단 사용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는 생리휴가 무급 실시 등 남녀평등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무장관실은 9월 3일 여천공단 사용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자치 2년, 남녀의원의 역할 비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는 9월 14일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제1회 여성정치지도자 교류마당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손봉숙 소장은 ‘지방의회 2년의 성과와 전망: 남녀의원의 역할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초, 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 여성의원 47명과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수의 남성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북경 세계여성대회 대비 민간여성단체들 모임 활발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대비하는 ‘마닐라 아·태 지역 비정부기구회의 설명회’가 9월 15일 한국여성개발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설명회는 11월 16일 열리는 마닐라 회의에 한국을 대표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날 회의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여의사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국제소통티트, 교회협의회 여성국, 여성신학자협의회, 원불교 동부교구, YWCA, 전문직여성클럽 등 20여개 여성단체가 참석했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장에 이배용 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이배용 교수(48)가 교내 부설연구기관인 한국여성연구소 신입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배용 교수는 김영정, 정세화, 조형, 장필화 교수의 뒤를 이은 다섯째의 여성연구소 소장,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광업진흥공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 한국여성연구소가 초기에 한국

여·성·계·동·향

여성사 자료발굴 작업을 할때부터 연구소활동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배용 신입소장은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한·독 통일 세미나, 아시아 여성학 연구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 증여세 폐지 주장 한목소리

9월 20일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대토론회가 YWCA강당에서 열렸다. 18개 여성단체 모임인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 주최로 열린 이 모임에서는 배우자 상속, 증여세 폐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영근 교수(서울 시립대, 세무학),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 유규수 교수(경상대, 보건경제학), 김숙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한명숙 한국여성민주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성여자 직업훈련원 졸업작품 패션쇼

여성전문인력양성기관인 안성여자 직업훈련원(원장 이필원)은 9월 17일 두번째 패션디자인과 졸업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2년과정을 수료한 29명의 패션디자인과 졸업생들이 ‘타임(Time)’을 주제로 졸업작품을 발표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발족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인들의 모임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9월 20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화학연구소에서 발족했다.

오세화 박사(50, 한국화학연구소 염료염색가공연구팀장)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대덕연구단지 내 4백여명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보육정책 대토론회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9월 24일 YWCA강당에서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영유아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정책의 대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정책 대안’ 주제발표를 맡은 허선(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은 지역별, 계층별, 규모별에 따른 차등표준단계 실시를 주장했다.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김진수 과장,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 교수, 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 김종혜 교수, 인천 북을 어린이집 전정배 원장, 안산 꿈나무 어린이집 장동순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목포대 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발간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소장

이수에 교수)는 여성학 연구서인 「여성연구」를 발간했다.

창간호 「여성연구」에는 이수에 교수의 ‘광주, 전남 지역 여성연구의 현황’, 안진 교수(전남대 사회학)의 ‘광주지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상태와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등이 실려 있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사 자료집 2」 발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는 조선왕조실록의 여성관계 기사수목집 제2권을 펴냈다. 6백 페이지에 달하는 제2권은 세종의 즉위 32년 기간중 16년까지의 실록에 해당하는 내용.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신청서, 통일원 제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실행위원회는 제5차 서울토론회 개최 일정을 결정하고 10월 11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토론회의 주제는 ‘민족의 화해’로 결정됐으며 북한과 일본에서 각각 20명씩 초청될 예정.

김효선 (여성신문 기자)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성황리에 마쳐



본회는 지난 9월 23일 이화여고내 유관순기념관에서 '2천년대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30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인 1994년을 앞두고 미래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김영삼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송정숙 보사부 장관, 황산성 환경처 장관, 권영자 정부2장관, 주양자·이우정·강부자 국회의원 등 전국의 여성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본회의 회원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단체인 입장을 시작으로 한 개회식은 대회준비위원장인 김옥환 부회장의 개회선언, 대회장인 김경오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제29회 용신봉 사상·제9회 올해의 여성상 시상식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시상식 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치사로 개회식이 마무리되고 이어 주제강연과 발제강연이

진행됐다.

주제강연은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이 맡아 2천년대의 가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기능과 이를 위한 가족 정책등을 제시했으며, 발제 강연에서는 류태영 건국대 부총장과 이옥주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이연숙 본회 부회장이 「민족정신을 창출하는 가정」 「미래사회와 가정의 기능」 「신 한국의 가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진정한 사회 발전과 여성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점심식사후 2부에서는 환경보호, 가정문제, 근로여성문제 등을 다룬 역할극 경연대회를 펼쳐, 전국의 여성단체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가정의 위기」란 제목으로 가정문제를 풍자한 국제송공연합전국여성회에게 돌아갔다.

팔도 어민, 농민 가을 큰장터 협찬

본회는 '농어민에게 풍요를, 도시민에게 고향을'이란 주제로 열리는 있는 「팔도어민, 농민 가을 큰 장터」행사를 협찬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용산역 광장에서 전국어민 후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는 생산자 직판을 통한 신선한 수산물·농산물의 저렴한 가격에의 공급, 각 품목별 원산지 및 생산자 명의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소비풍토 정착, 우리 농수산물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로 시장개방에 능동적 대처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이 행사기간중 우리 농수산물 예용 캠페인을 용산역 광장에서 전개했다.

고아원 방문, 선물 전달

본회는 지난 9월27일 우리 전래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해심원을 방문, 소고기·과일·각종 반찬류 등을 전달했다.

정무제2장관실 국정감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

본회는 지난 10월 7일 국회행정위원회 정무제2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이영권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당의원 및 이만섭 국회의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 앞으로 보냈다.

성명서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원으로서의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갖지 못했음을 개탄하고 앞으로 진지한 자세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본회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평가해 앞으로의 선거에 반영시킬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무제2장관실 국정감사에 대한 성명서〉

본회는 지난 10월 7일 국회행정위원회 정무제2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이 한 발언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월8일자 한국일보 5면, 한겨레신문 4면 참조).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의원 중 특히 이영권의원(민주, 장흥)은 여권이 신장되면 가정 갈등이 많아지고 가정이 파괴될 소지가 많다는지 남녀 동등한 임금 요구는 노동현장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상 기관인 정무제2장관실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설치 되었는지조차 모르며 또한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여성관이야 자유이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여성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진지한 자세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회는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이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선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3. 10. 9.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오

본회, '남녀평등한 세계 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후원단체로 참여

본회가 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신을 위한 여성단체모임」(17개 여성단체로 구성)은 지난 9월 20일 서울YWCA강당에서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최명근 교수의 강연에 이어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등이 참석하는 토론이 있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주부명의로 된 금융자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남녀가 공히 평등한 세계개혁신을 해야 한다는 전여성계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번 토론회를 낳았다. 한편 세계개혁신모임은 지난 9월 23일 본회 주최 전국여성대회장에서 있는 세법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영양사회

'93 심포지움 개최

지난 9월 9일에 대한영양사회는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주최로 『우리나라 보건소 영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국의 회원 및 내외빈, 보건소 관계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재학생 등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동회 조정순 회장과 한국영양학회 제법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경식 보건사회부 차관의 「신한국 경제발전과 보건소 영양사업」이라는 기조강연이 있었다. 뒤이어 주제발표 I은 문수계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영양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문현경 한국식품연구원 영양연구부 수석연구원(동회 이사)의 「보건소 영양사업을 위한 제안」에 대한 발표, 주제발표 II는 조정순 명지대학교 교수(동회 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백희영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영양학회 총무)의 「보건소 배치 영양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지역사회 보건영양사업의 실시 사례 발표로 「보건영양사업의 효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김찬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 「보건영양사업의 내용과 평가」에 대하여 이은경 권선구보건소 영양사, 「지역사회 영양사업 사례 보고」 등에 대하여 허계영 영동세브란스 병원 영양사의 발표 시간이 있었으며, 이어 김화영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8명의 토의자가 발표된 주제내용에 대하여 토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심포지움을 마쳤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영양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1차 논의를 한 데 이어 두번째 개최한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보건소영양사업에 대한 제안 및 이를 수행할 영양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보건소에서의 영양사업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토의자들도 지역사회 보건영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성인병의 증가로 인한 국가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 차원의 영양정책 수립과 영양사업실시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1차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합리적인 영양관리는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비를 경감시키며, 특히 태아, 신생아, 유아사망 및 임산부의 사망률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 영양적인 요소가 필요한 사업이 많으나 지금까지 영양적인 요소가 배제되거나 비전문인에 의해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이 급성전염병관리, 결핵관리, 가족계획 등의 기존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지역영양사업 등의 업무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3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성료

대한영양사회에서는 '93년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지난 9월 10일에 63빌딩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단체급식소에서의 지방질 섭취현황과 바람직한 지방산 섭취형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동회 회원 및 내외빈,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회 조정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식 후 광동경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사업체집단급식소 근로자의 지방질 섭취 조사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본 조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량자급률의 증가로 식생활이 안정화 되고, 식품공업의 발달과 수입증가 등으로 우리 식생활이 크게 변화되어 전체 식품섭취량중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 열량 중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심장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인 성인병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우리나라 지방질의 섭취가 적정한지 과부족인지 알아보고, 특히 사업체 근로자의 건강차원에서 적정지방질 섭취에 관한 올바른 식생활지침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으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은 16.9%로 권장하는 20%보다 낮아 지방질의 과잉섭취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섭취한 지방산의 P/M/S비율과 더불어 w6/w3비율도 현재 권장하고 있는 범위에 속하여 질적 섭취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뒤이어 특강으로 「바람직한 지방산의 섭취」에 대하여 이양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양자 교수는 지방산의 섭취를 권장할 때 P/S비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P/M/S비율과 더불어 w6/w3비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당한 지방산의 섭취량은 P/M/S비율을 1.0~1.5/1.0~1.5/1.0으로 하고 w6/w3의 비율은 모유의 4/1~10/1에서 좀 더 낮은 쪽으로의 이동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한국인의 영양소섭취 자료와 질병(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 이환율과 모유·초유성분 등의 조사연구가 다각적 대상 인구집단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오후 1시부터는 '93년도 학술대회가 각 분과별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사업체분과에서는 특강 외에 6개, 학교분과에서는 5개, 병원분과에서는 7개에 대한 연구논문 및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료들이 많이 발표되어 급식관리 업무 및 영양관리 업무에 있어서 진보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계절농산물을 이용한
추석음식강습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

부터 회원단체 고유사업에 대한 후원을 받아 "계절농산물을 이용한 추석음식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20일 21일에 대전시 동회 중부지부 강의실과 동회 본부 강의실에서 각각 개최된 강습회에는 약 350명의 주부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소개된 추석음식으로는 토란탕, 삼색송편, 토란건치구이, 버섯전골, 밤다식등이며 박경선 부원장의 실제 조리 시범 후 참석자들이 직접 시식하므로 실제효과에도 기여하였다.

「우리농산물로 정성껏, 알맞게」라는 주제하에 실시된 본 강습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간소한 추석지내기 인식 제고효과에 기여하였으리라 기대된다.

제3회 전국수산물요리 솜씨대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4일 제3회 전국 수산물요리 솜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중적이며 새롭고 다양한 수산물요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소비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참가대상은 수산물 요리 애호가로서 자격제한은 없고 참가신청서 접수 후 원고심사를 하여 본선 참가자를 정하게 된다.

본선 참가예정자는 70여명으로 대회 당일 현장에서 조리, 출품토록 하며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사신청서 배부처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마감은 11월 5일까지이므로 수산물요리에 관심있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전화 신청하면 우편으로 송부가능

• 서울 : (02) 733-4983, 4079

• 대전 : (042) 255, 257-3995

• 제주 : (064) 51-1787

대한간호협회

노사관계세미나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월22일, 간협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문민시대의 새로운 의료계 노사관계방향」 세미나를 개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제강연을 맡은 노동부 노동조합과 이완영사무관은 「의료기관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발표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의료기관이 공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타업종보다 근로자에 대한 복지 증진, 교육훈련,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대우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민시대의 노사관계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형태가 돼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토론에 있어서는 보사부 병원행정과 김인택사무관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욱 사무총장은 “노사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측은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근로자측 역시 인명을 다루는 직업임을 감안, 파업등의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개개기관의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사용자측인 대한병원협회와 근로자측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협의기구를 설치하는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문민시대에서 의료계 노사관계는 대등하고 민주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었다.

가톨릭여성연합회

가톨릭여성신앙대학 3기, 4기 개강

본회는 가톨릭여성신앙대학 제3기, 제4기생 가을학기를

9월부터 11월까지 개강하며, 9월에는 “여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0월에는 “2000년대 복음화” “교회사” 11월에는 “여성, 하나님의 딸”의 주제로 매주 월요일 10:30~12:00, 평동성당내 교육관 205호에서 개강되고 있으며, 여성신자들의 재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중구 시민교육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지난 9월17일 중구지부 교육관에서 “새시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약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명회 중구회장의 인사, 문상회 회장의 주제강연, 김순희 회원의 시민실천 사항 제창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회장은 새정부출범을 중심으로 새시대가 전개되어 가고있는 이때에 여성들이 시대에 걸맞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를 직시하고, 여성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느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가치관은 소유하고 고루하고 습관화된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진취적이고 보다 큰 일을 위해 희생·봉사해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는 비단 사회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자녀들의 교육은 대부분 가정생활에서 결정됨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보다 신중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부부서서서회회감조재출기국사	회회회기기계계직정공연제무	관리위원위원구계총	장김이정김강사사사사사장장장장장장장	김이정김강최김백이양이정조박박김	경연연옥인회경정요은옥연정영금	오숙심환자애란식숙기심순호혜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909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아파트 805 종로구 관철동 260 세븐미용실 강남구 신사동 615-4 (주)인테크 도봉구 수유5동 510-20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양동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909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1305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8-119 용산구 청파2동 숙명여대 불문과 노원구 중계본동 4블럭 신동아파트 115동 603호	584-1428 649-5353 783-2924 032-93-3493 503-4691 796-7557 732-9585 511-0031 352-8607 561-2630 053-32-4472 783-2924 562-6416 572-4308 710-9323 934-7866
------------------	---------------	-----------	--------------------	------------------	-----------------	-----------------	---	--

회원단체

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중구 방배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이옥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혜단	강남구 압구정동 408 조오련수영고실B/D 2층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숙자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정숙태	중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숙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인방	성동구 종로4동 64-30 24동1번	457-7981
한국우먼스클럽	이연옥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국제존타서클협회	최정연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03-2112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이정옥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정예준	종로구 평창동 537-9	352-1872
우리웃음협회	이왕민	서초구 서초동 1161-2 익사회관	581-1201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김정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번지 2,3층 백제약국4층	631-8006
국제여성총연합한국본부	문상경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대한영양사회	정경숙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문정영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통일여성안보회	이정영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영수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윤수자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수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90-5200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윤수자	서초구 양재동 342-5 협진빌딩 201호	571-2999
		종로구 견지동 111-1	723-1250

편집후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오늘에 이른 30회 대회. 1, 2층을 빼곡히 메우고도 복도에 줄지어 앉은 참석인원 3천여명. 대회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내외분이 나란히 참석해 치사한 것을 비롯, 전국각지의 여성 지도자들의 빠짐없는 참석, 장시간의 강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리를 뜨거나 이동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시종 진지한 분위기 등등.

이번 제30회 전국여성대회는 실로 30년 역사가 낳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월간여성 • 1993년 10월호 통권312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천리기획

발행일자: 1993년 10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396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조정은

위원: 김희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문경 / 신동식 / 오종자 / 박영혜

담당: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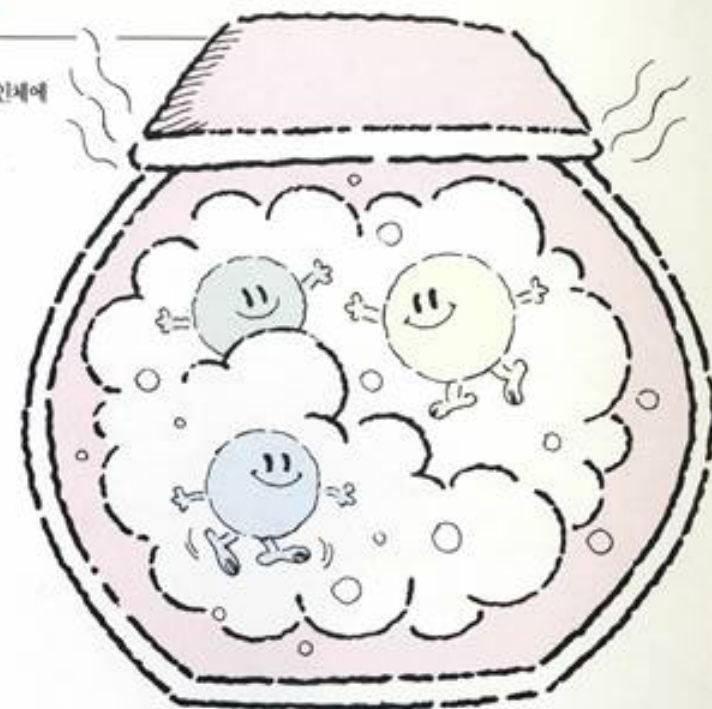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알아봅시다.”

발효조미료

발효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해서 인체에 유익한 천연성분을 생성하는 것



발효식품의 예

간장, 된장, 김치, 젓갈, 식혜, 식초, 요구르트, 치즈, 버터, 빵, 주류 등

발효조미료의 사용방법

발효조미료 미원은 냉수나 온수에 모두 잘 용해되고 가열에도 안정하므로, 언제 넣어도 좋으나, 일반적으로 불고기, 양념구이 등은 익히기 전에 국이나 탕 등은 끓기 직전이나 끓은 후 넣는 게 좋다.



발효조미료의 성분

발효로 만들어지는 글루타민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아미노산 중에서 유일하게 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미료의 주성분으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글루타민산은 모유나 우유, 치즈, 쌀, 콩, 쇠고기, 토마토 등 우리가 늘 섭취하는 모든 천연식품중에 풍부히 들어 있으며, 인체 내에서도 스스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성분이다.

발효조미료의 제조방법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생산하여 물과 영양분을 배합하고 미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뒤,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시키면 글루타민산이 만들어진다. 이 글루타민산에 나트륨을 결합시켜서 얻어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바로 감칠맛을 내는 발효조미료인 것이다.

인체 안전성에 대한 주요 국가의 평가

유엔의 식품평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유럽공동체의 과학위원회 등은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발효조미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절대 안전하며, 알인섭취 허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미국의 FDA도 연방 규격검의 안전한 식품 리스트에 수록하고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부도 1986년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임을 공식 발표하는 등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성을 인정하고, 사용량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 등 주요기관의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MSG는 인체에 지극히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 생후 12주 미만의 영유아들도 성인과 똑같이 MSG를 대량 섭취할 수 있다.
- MSG에 대한 더 이상의 안전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MSG: 글루타민산나트륨=발효조미료)